

보도시점 2023. 11. 13.(월) **즉시보도**

빈대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해 지자체 방역 신속 지원

-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긴급 지원
- 오늘부터 4주간 ‘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’ 운영(11.13.~12.8.)
- 취약시설 방제를 위해 신규 승인된 방제 약품 등을 통한 방제 지원

-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빈대 출현과 피해사례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빈대 발생이 확인된 지역을 비롯하여 전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2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.
- 이번 특별교부세는 「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(본부장: 국무조정실장)」에서 오늘(13일)부터 운영하기로 한 ‘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(4주간)’ 동안 지자체의 빈대 방제와 방역 효과성 제고를 위해 방제약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.
- 특히, 쪽방촌, 고시원 등 취약계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.
- 「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」에서는 ▲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운영과 함께 ▲효과성 있는 살충제 도입, ▲정확한 정보 제공(빈대 정보집), ▲취약계층 방제 지원, ▲해외 유입 차단 등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.
- 그 일환으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지난 10일(금) 내성이 덜한 빈대 방제용 살충제 8개 제품에 대하여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했다.
- 이에,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새로 승인된 살충제를 신속히 도입하여 방역현장의 빈대 방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.

- 지자체에서는 이번 특교세를 빈대 방제용으로 신규 승인된 살충제의 확보와 증기(스팀) 청소기, 진공청소기 등 물리적 방제 용품 구입 등 빈대 집중 방제·방역에 사용한다.
- 이상민 장관은 “최근 가정집, 대중교통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빈대 발생 신고가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, 오늘부터 시작되는 ‘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’ 동안 빈대 확산세를 확실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”라면서,
- “정부는 국민께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방제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,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(빈대 대응)	사회재난실 보건의료재난대응과	책임자	과 장	엄현숙 (044-205-6150)
		담당자	사무관	최기수 (044-205-6157)
담당 부서 (특별교부세)	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응범 (044-205-5110)
		담당자	사무관	김경찬 (044-205-5125)

